

전주시청 수영부, 전국수영대회 종합우승



문승우 선수 최성환 선수

전주시청 수영부 선수단은 지난 11~15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3회 김천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차지하며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문승우 선수는 접영 2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올해 신규 영입된 최성환 선수도 자유형 8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전주시청 수영부는 계영 400m 경기와 계영 800m 경기, 혼계영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이번 대회에서 수확한 5개의 금메달 중 3개를 단체전에서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계영은 4명의 선수가 모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순위에 들 수 있는 경기다.

이외에도 전주시청 수영부는 이번 대회에서 고성민 선수가 자유형 1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지환 선수가 자유형 1500m 경기와 개인혼영 4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 조현재 선수는 평영 50m 경기와 평영 1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거머쥐는 등 고른 활약을 펼쳤다.

전주시 체육산업과 관계자는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여준 수영부 선수단이 새봄 산뜻한 금빛 출발을 해 매우 기쁘다"면서 "수영부 김홍량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 모두가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은 기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임원 역량 강화교육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16일 춘향문화예술회관대강당에서 관내 500여명의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임원역량강화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 시제를 중심으로 허브산이 대한민국 이다 라는 자존감 향상 강의, 건강 체조에 이어 최경식 남원시지회 노인복지 시책 설명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객철곤 지회장은 "그동안 코로나9로 인해 폐쇄되었던 경로당 운영 제한이 해제되면서 경로당에서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다시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관내 405개 모든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 및 IPTV기 설치를 통해 인터넷방송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실시, 국도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40여 년간 사용해온 현 남원시지회 건물은 1,000㎡규모로 신축해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갖추는 등 어르신 복지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2023년 적극행정 교육 실시

장수군이 지난 16일 군청 군민화관에서 공직자의 인식 확산 및 실천 유도를 위한 2023년 적극 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소속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적극행정 강사인 조남식 주무관(국민권익위 소속)을 초빙해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조남식 주무관은 "나는 공무원에 인생을 걸었다"는 주제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군은 적극 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 마련 및 법률 지원을 통해 더욱 적극 행정을 장려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금구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김제시립 금구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을 오는 25일 10시 어린이 대상 창의보드 프로그램과 29일 10시 성인 대상 체험수업(공예, 요리)을 진행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는 도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두배로데이'와 공예, 요리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2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두배로데이'는 도서 대출 권수가 현재 1인당 최대 5권인 데 10권으로 도서 대출권수를 확대해주는 서비스이다. 성인 대상 체험 공예는 자이언트만 만두가방 및 가족공예를 만들고, 요리는 오리안다 강정, 리얼 고구마빵, 비빔떡 쥬얼을 만들 예정이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마지막주 토요일 창의 보드를 운영한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은 "지역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요리 공예, 창의보드 등의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문의 사항은 금구도서관 아동열람실(540-4159)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 살 한복 여든까지'

한국전문문화재단, 한복 원복 첫 보급

한국전문문화재단(원장 김도영)은 지난해 개발한 한복 유치원(어린이집) 원복을 지난 17일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교동 원광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당에 따르면 한복 원복은 지난해 '세 살 한복 여든까지'라는 주제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 전통과 현대적 실용성을 두루 갖춘 전주만의 특별한 한복 어린이 원복으로 제작됐다.

제작된 한복은 올해 처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3세~5세 원생을 대상으로 하복과 동복 한 세트 기준 40세트를 시범 보급한다.

이번 한복 원복 보급의 수혜는 지난 2월 3일 한복 원복 도입을 희망하는 전주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진행, 교동원광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보급된 한복 원복은 동복과 하복 두 세트, 동복은 한복 바지 디자인으로 제작해 따뜻한 느낌과 실용성, 편리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동복 겹옷은 한복 두루마기 디자인과 누빔을 통해 방한 효과를 더 했다.



또 '하복'은 한복의 당고 및 모양의 목부분 디자인과 예로부터 원전성을 갖춘 수라고 여기는 3가지 색을 이용한 삼색 색등을 소매 끝에 활용했으며, 여름철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이 입기 편하게 면소재로 제작했다.

김도영 원장은 "어렸을 때부터 한복과의 친숙함을 길러주고 한복이 우리 고유의 의복임을 일깨워주는 것은 여타 교육 못지않은 소중한 가치"라며 "내년에도 한복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새봄맞이 환경정비 쾌적한 정읍 만들기 앞장

정읍시가 새봄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새봄맞이 일제 청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를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유관기관, 공무원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겨울철 내내 쌓여있던 각종 쓰레기와 도로변 등에 방치되어 있던 불법투기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투기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영농철 논밭에 산재해 있는 영농폐기물을 조기에 수거해 토양오염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은 일제 대청소 기간 자체 계획을 수립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내 관계기관에서도 자체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관련해 지난 16일에는 정읍시청 공무원 500여 명이 정읍



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공무원들은 산책로와 도로변 녹지대, 하천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시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읍천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병원, 봄 맞이 '행복콘서트' 개최

환우와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봄 맞이 행복콘서트'가 지난 16일 전북대병원 1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비올라 연주팀 Tutu 앙상블과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가야금 부수석 박달님 연주자의 연주로 마련된 콘서트는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콜라보 공연으로 내원객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의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한 콘서트는 환우와 가족 내방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올라와 가야금의 선율을 통해 온기를 나누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Tutu 앙상블은 '사랑의 인사' 당신을 위해요, 여인의 향기 OST, 시네마 천국 OST, 라라랜드 OST 등 대중에게 익숙한 명곡으로 연주를 구성해 봄의 따뜻함과 친숙함을 느꼈다.

마지막 곡은 박달님 연주자의 협주곡으로 25 현 가야금협주곡 연어를 연주하며 가야금이 주는 경쾌함과 비올라의 따뜻한 음색으로 동서양 조화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한화손해사정, 취약계층 위해 2000만원 기부

남원시는 한화손해사정(대표이사 문정근)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화손해사정은 2020년부터 금지면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부를 시작으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회사 출연금을 더해 매년 2천만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연탄배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한편 문정근 대표이사는 "경기 불황과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최경식 시장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에 감사드리다"며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을 표현했다.

공연을 펼친 Tutu 앙상블은 7명의 비올라리스트로 구성된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로 연주자와 관객 음악을 함께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영태 기자



고창군, '청소년 안전망' 복지심의위 열려

고창군이 지난 16일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청소년안전망 복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재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군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12개의 필수 연계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은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각 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재영성과 이길숙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역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철웅 전남드레곤즈 선수, 전주대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7일 대학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전남드레곤즈 정철웅 선수가 학교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경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정철웅 선수를 대신해 부모님인 정성호 씨를 비롯해 대학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정철웅 선수는 전주대학교 축구부 소속으로 2021 U리그 왕중왕전 우승,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등을 했다. 빠른 스피드와 체력이 뛰어난 선수로 3학년 재학 중에 전남드레곤즈에 입단했다.

한편 기부금은 축구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정철웅 선수는 전주대학교 축구부 출신으로서,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정철웅 선수와 같은 전주대 선수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 신대인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

정읍 신대인농협(조합장 김성주)은 지난 17일 본점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대학생 15명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 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총 2,43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성주 조합장은 "조합원의 교육비 절감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된 농협 장학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농협을 사랑하는 미래의 조합원, 고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병원, 중증장애인 '드나들기 하우스'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주거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평가 및 주거안전 교육,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주거개선 프로그램 '드나들기 하우스' 사업을 진행한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가 공공보건 의료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드나들기 하우스'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평가를 통해 맞춤형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장벽 제거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증진시켜 일상 및 집으로의 복귀라는 재활의 공공적 목표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달리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집으로 퇴원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지난해에도 '드나들기 하우스' 사업을 실시, 중증장애인 17가구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욕실 문확장 및 교체, 욕조제거,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등의 맞춤형 주거개선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실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15가구를 모집하며,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상·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하며 장애인, 일상생활 불편도 주거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업 문의와 신청은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사회사업실(063-250-1747)을 통해 가능하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김기욱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하였을 때 주거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거 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병원에서 재활치료 이후 원활한 가정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욱 기자

